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 'with you' 전시 부스 참가



주안교회와 주안복지재단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되는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에 참가하여 전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는 한국 교회봉사단과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월드디아코니아가 주관하고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주최하여 지역 사회, 다문화, 사회소외계층, 북한, 노인,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장애인, 가정여성 등 9개 분야에 대한 전시와 학술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김을 뜻하는 헬라어(고대 그리스어)교회의 5대 기능-레이투르기아,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중 하나이다.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 '섬김을 수행하다'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즉,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과 돌봄을 의미한다. 디아코니아는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이웃을 위해 최선의 나눔과 치유를 통해 섬기는 것을 말한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는 서울광장에 150개 부스가 설치되어 개신교 '사회

복지 130년'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한국 개신교계가 해왔던 성과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는 종교적 차원의 사회복지 운동을 뛰어넘어 일반시민들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나눔 사역을 위해 온라인 SNS캠페인 전개와 한국교회 섬김 사역 격려 및 지속적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은혜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사역의 총량을 가늠하며 사회복지기관들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복지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주안교회, 주안복지재단에서 전시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인 주안애 종합사회복지관, 나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애녹재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체험 활동을 기획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였고 이를 통해 주안교회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행사장을 방문한 1만 5,000여명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녹재의 노인 전문도서 '시니어 리더십'과 '시니어 인문학'의 배포를 통해 더욱 풍성한 사랑 나눔 실천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당신이 있어 우리 모두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